

**나태를 뜻하는 헬라어 ‘아케디아’는 ‘돌보지 않다, 무책임하다’란 뜻이 있습니다.**

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. 백성이 ‘게을러’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게으른 사람은 늘 ‘비법이나 요령’을 찾습니다. 힘든 길은 가기 싫고, 대가를 치르기도 싫기 때문입니다. 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(잠 22:13). 그러나 인생살이에는 어떤 비법도 없습니다.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,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.

**신앙적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옵니다(대하 29:7-9; 삼상 1-4장).**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나태하게 되고,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. 하나님은 이를 ‘악하다’고 말씀하십니다(대하 29:6; 마 25:26). 하나님과 단절되면, 인간은 이기적으로 사고하게 되며 결국 모든 관계가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.

**나태의 특징은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.** 나태한 사람은 알고 하거나 신경 쓰거나 즐기거나 미워하거나 추구하거나 그 어떤 것도 ‘하지 않습니다’. 무언가를 할 의지는 없고,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강합니다.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가리켜 “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 있는 죄”라고 했습니다.

**게으름의 반대말은 근면(diligence)입니다.** 근면이란 단어는 사랑하다(diligere)라는 라틴어로부터 왔습니다. 즉,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도,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사명도,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과 관계들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생계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지만 마음과 열정은 거기 없습니다.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할 일을 하면서도 정작 우울하고 지루해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.

나의 삶은 나태합니까,  
근면(사랑)합니까?

- ① 관계, 사명, 일상 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?
- ② 내 삶에서 ‘하지 않음’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?